

근로자행동특성에 의한 사고발생추정 S.W개발  
Development of S/W for Accidents Estimate by Worker  
Behavior Characteristics

\* 연구자 : 김 두 환

◎ Abstract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개인의 불안정한 행동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방안이 제시되고,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자중 사고경향성이 내재되어 있는 자는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적성검사를 통해 선별하여 사전에 행동특성에 알맞은 지도교육이 요구된다. 따라서 적성검사결과 심적갈등이 심한자일수록 사고경험이 있는 자와 일치하는 경향이 연구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1) 크레베린 검사결과 유형이 비정형이고 인간행동 적용지수(1.5이하)가 낮은 사람일수록 사고경향이 높고 정형자라도 사고력보다 행동의 기민자는 경솔한 행동경향이 커서 불안정행동을 자행하는 확률이 높다.
- (2) 크레베린 검사 작업량이 A단계 이상인자는 행동적용지수가 2이상 인자가 많고, 정서안정과 균형감, 판단력이 양호하여 안전한 행동이 실행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 (3) 크레베린 검사결과 오답율이 산발하거나 다발자는 비정형군일수록 인간행동에 실수가 많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며 특이한 성격소유자도 사고경향성이 높다.
- (4) 사고경향자는 작업량이 전후기곡선중 갑자가 침몰하여 진폭이 깊고 동요가 심하며 정서불안정 균형감이 미약한 경향이 높다.